“내 안의 많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연기”

염혜란, 영화 ‘빛과 철’ · ‘아이’ · ‘새해전야’ 개봉
연극 무대서 출발해 드라마까지 종횡무진 맹활약

두 여자가 한 교통사고로 남편들을 잃었다. 희주(김시은 분)의 남편은 죽었고, 영남(염혜란)의 남편은 2년째 의식 불명으로 누워있다.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희주는 영남과 맞닥뜨리고, 영남의 딸 은영(박지후)이 희주의 주변을 맴돈다.

오는 18일 개봉하는 영화 ‘빛과 철’(감독 배종대)은 이 세 여자를 둘러싼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각자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며 몰랐던 진실을 향해가지만 드러난 진실이 전부도, 최종 목적지도 아니다.

배우 염혜란(사진)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 도달하는 게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미스터리 장르로 풀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인물의 섬세한 변화였고, 그게 잘 드러나야 하는 작품이었어요. 여자 주인공들만 나오는데,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인 이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여자들의 삶을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죠.”

자신이 연기한 영남에 대해서는 “안으로 응축된 태풍의 눈 같은 느낌”이었다며 “태풍의 눈에서 저벅저벅 밖으로 걸어 나오는 강렬한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영남은 교통사고 이후 사고에 의심스러운 점도 있지만 커가는 딸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 제대로 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 희주를 마주하며 덮어두었던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된다.

“봄이 오기 전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단단한 얼음처럼 보이지만, 건드리기만 해도 깊은 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느낌으로요. 상처들이 방금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 포기했나, 무뎌졌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내재한 감정을 생각했어요.”

염혜란은 이 영화로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다.

지난해 화제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경이로운 소문’에 이어 새해 들어 개봉하는 영화만 ‘빛과 철’ 외에 ‘새해전야’, ‘아이’까지 세 편이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한다고 했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칭찬이 좋기도 하지만, 세 작품이 동시에 개봉하게 되면서 부담도 컸다고 했다. “내 연기를 큰 화면에서 보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많이 노출되면 실망도 많아질 텐데”라는 생각도 앞섰다.

연극 무대 출신인 그는 영화와 방송으로 옮겨온 뒤에는 상대 배우를 보지 않고 연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카메라를 사람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다른 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연기인 것 같아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 수천수만의 나를 발견하는 일이 연기이고, 스스로 한계짓지 않으려고요.” 연합뉴스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그렇지 못한 세상

아동학대 다룬 영화 ‘고백’
참혹한 현실과 사회에 경종

학대를 당하는 아이,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사회복지사, 죽은 채 발견된 가해자와 사라진 아이.

영화 ‘고백’은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소재를 살인과 유괴라는 어두운 미스터리를 접목해 풀어간다. >>사진

범죄 드라마지만, 특정 범죄 사건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적인 현실을 아프게 드러낸다.

‘고백’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 장면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뉴스에는 국민 성금 1억원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유괴사건이 보도된다.

같은 날 사회복지사 ‘오순’(박하선)이 돌보던 아이 ‘보라’(감소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보라의 아버지는 며칠 뒤 시체로 발견된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전 보라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던 오순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다.

작품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며 관심을 촉구한다. 보라를 통해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그렇다고 영화에 아동학대 장면을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굳게 닫힌 문 넘어 아이가 겪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늘 의기소침하고 또래 아이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보라의 모습을 통해 학대로 인한 상흔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화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유괴와 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짚어가는 경찰 ‘김지원’(하윤경)을 통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지원은 오순의 행적을 좇아가며 진실에 다가가지만, 누구 편에 서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착잡함을 느낀다.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영화는 아동학대 외에도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여성 차별 등의 문제도 두루 다룬다. 100분이 안 되는 러닝타임에 여러 주제를 넣다 보니 짜임새는 조금 헐거워졌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일상적인 문제들이란 점에서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는 24일 개봉. 연합뉴스

설 연휴 사로잡은 여전한 ‘트로트 열풍’

트롯전국대잔치 팬덤 과시
골 때리는 그녀들 관심 증폭
20년 만에 돌아온 ‘동거동락’

트롯전국대잔치.

골 때리는 그녀들.

짧았던 이번 설 연휴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특집 프로그램은 SBS TV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2TV ‘트롯전국대잔치’였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방송한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률은 4.8~8.4%, 6.0~10.2%로 집계됐다.

여자 스타들의 축구 도전기를 담은 ‘골 때리는 그녀들’은 남다른 볼 감각을 보여준 박선영의 활약으로 FC 불나방이 우승했다. 박선영 외에도 오나미, 진아름, 전미라, 심하은 등이 기량을 발휘하면서 주목받았다.

해설과 진행을 맡은 이수근과 배성재가 “제대로 된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덕분에 이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12일 방송한 ‘트롯전국체전’의 특집 격인 ‘트롯전국대잔치’도 5.3~10.2%의 시청률을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팬덤을 과시했다.

특집에서는 각 지역 특산물이 걸린 노래방 대결과 단체전이 펼쳐졌다. 또 ‘트로트 오누이’ 진해성과 오유진의 특별한 듀엣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트롯전국체전’은 설 특집 흥행과 더불어 본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조금 끌어당기면서 전날 시청률이 12.8~18.2%로 고공행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트로트 오디션 원조 격인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의 특집 ‘운수대통 트롯대잔치’ 역시 8.283%(유료가구)의 시청률을 보였다.

MBC TV ‘트로트의 민족 갈라쇼’는 11일 방송이 6.0~6.3%, 12일 5.1~4.7%를 기록했다.

MBC에서는 전날 방송한 ‘놀면 뭐하니?’의 설 특집인 ‘2021 동거동락’이 9.0~9.6%의 시청률을 보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재석은 20년 전 인기 예능인 ‘동거동락’을 다시 살려내 탁재훈과 홍현희부터 이영지, 츄까지 ‘세대 대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멤버 12명은 댄스 신고식부터 꼬리잡기 게임까지 단합력과 승리욕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이밖에 MBC TV ‘아이돌스타 레전드 선수권대회’는 11일 2.6~2.0%, 12일 1.7~2.2%, KBS 2TV ‘류수영의 동물티비’는 3.2~4.7%, JTBC ‘뭉쳐야 쏜다-전설들의 농구 대잔치 스페셜’은 1.922%(유료가구)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싱어게인 ‘보너스 트랙’ 공개

JTBC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의 스페셜 편인 ‘보너스 트랙’을 오는 1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한다고 14일 예고했다.

‘보너스 트랙’에서는 결승전 뒷이야기가 공개된다. 파이널 무대에 대한 가수들의 솔직한 심정과 소감, 무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들이 뽑은 톱(TOP)3 최고의 무대, 미방송 분량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우승자인 이승윤이 소속 밴드 ‘알라리깡숑’ 멤버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2라운드 팀 대항전에서 ‘누구 허니’로 팀을 이뤄 ‘연극속에서’를 재해석한 이승윤과 이무진의 이야기 역시 공개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1:55 나의 살던 고향은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8:00 딩동댕 유치원 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9:40 우리집 유치원 12:25 지식채널e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16:30 딩동댕 유치원 17:00 EBS 뉴스 17:30 티시태시 19:00 위 베어 베어스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숨터 13: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 안테나(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쥬쥬 별의여신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15 개는 훌륭하다 2부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싸우면 다행이야 1부 21:55 안싸우면 다행이야 2부 22:40 특집 100분 토론	18:50 네모세모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23: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3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8:3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작 9: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1:30 취미로 먹고 산다 12:30 KCTV 시청자세상 14:30 방송콘텐츠경연대회수상작 17:00 KCTV 뉴스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5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언행을 자제하고 흉을 보지 마라.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60년 찌든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날.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하니 섬세함이 필요. 84년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있는 날이니 자중하라.

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길하다.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철저히 세워라.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나 이동은 불리하다.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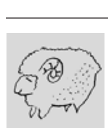
38년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 62년 배달사고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6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39년 분실이나 물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한다. 51년 과도한 재욕이 화를 부르니 정도를 지켜라. 63년 뜻하지 않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된다. 예의와 접대는 존경을 얻는다. 75년 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성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7년 정보수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0년 일에 성과가 있으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 52년 친지나 벗을 만나고 전문가를 접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64년 나태함과 게으름이 후회를 낳으며 부부간 다툼이 된다. 76년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88년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직업 또는 금전 문제가 더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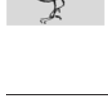
41년 변동 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53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65년 자녀문제가 가정불화로 확산된다. 77년 변동이나 변화가 필요하며 금전 지출이 발생한다. 89년 이별에 아쉬움이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2년 식장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 54년 문서운, 계약운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다툼,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 78년 작은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라. 90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


43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55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하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67년 모임이 있으면 차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79년 직업에 변화를 꾀하려 하거나 인기업종으로 변화를 주려 한다. 91년 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 과음절제.

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역부족.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 동료간 논쟁을 조심해야. 68년 관재구설수가 두려우니 미연에 예방하라. 부부애정 적신호. 80년 시원스런 소식을 접하고 만나는 이가 귀인이다. 92년 형제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용돈이 생긴다.

45년 나눔을 주게 되거나 봉사할 일이 기다린다. 57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관련 좋은 소식이나 일이 있다. 69년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니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 81년 새로운 교제가 진행된다. 나와 편안하게 대화가 통한다. 93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46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욕심을 내지 말 것. 58년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후회를 만드는 격이니 나보다 상대를 중히 여김이 필요. 70년 업무과중이나 윗사람의 충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 94년 우정에 불화의 골이 깊어지니 신속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필요.

47년 하던 일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라. 무리수는 후회를 부른다. 59년 상가나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71년 성과가 있고 이익이 현실로 나타난다. 83년 취업이나 직업변동이 오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 95년 부모님 건강이 불리하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안이 된다.